

신석기시대 토기

윤지연, 102호 신석기실, 18:00~18:30

토기는 흙을 물에 개어 빚은 뒤 불에 구워 만든 그릇으로 신석기시대에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토기가 인류사에 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다른 재질로 만든 그릇에 비해 자원, 시간, 노동력 측면에서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토기가 만들어졌을 것이라 봅니다. 자원 개발과 기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환경 변화에 따라 신석기인들이 식물자원을 이용하게 되면서 도토리나 같은 견과류나 여러 식물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처리하기 위해 토기를 만들었을 것이라 보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식생활을 유지하며 한 곳에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석기시대 토기는 다양한 무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하학 무늬, 동·식물 무늬 등을 겉면에 그리거나 새겨 넣기도 하고 점토 띠를 붙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장식에는 토기 제작 집단의 미적,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토기에는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집단의 기호가 반영되기 때문에, 토기를 통해 제작 집단을 구별하고 지역적, 문화적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신석기시대 토기는 기원전 8천년경 제주에서 사용한 무늬 없는 토기[原始無文土器], 기원전 6,000년경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 사용한 덧무늬토기와 누른무늬토기, 기원전 4,500년경 중서부 지역에서 사용한 빗살무늬토기, 기원전 2,000년경 남해안 지역에서 사용한 겹아가리토기 등이 있으며, 모양과 무늬에 따라 크게 동북, 서북, 중서부, 남부 지역 등 네 지역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덧띠무늬토기(부산 동삼동)



빗살무늬토기(서울 암사동)



겹아가리토기(부산 울리)

제64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7월 17일)

서화 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

천주현, 202호 서화2실, 18:00~18:30

○ 서화 손상의 원인과 대책

- 온 · 습도: 물리적 변형, 화면의 박락, 생물적 피해 발생 → 적정 온습도 유지 및 급격한 변화 지양.
- 인위적 손상
 - 과도한 복원, 문화예술 이해의 부족, 소유자의 요구
 - 전통기술 이해의 부족: 과거 보존과 복원을 동일시하는 풍토로 인한 새로운 기술의 무조건적인 도입
 - 재료와 재질에 따른 기술적 변화 적응 미흡: 전통안료(염료)와 인공안료(염료) 특성 이해 부족
 - 제작 방법에 대한 이해 미흡: 채색화, 자수화 등 제작자의 제작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손상

○ 서화보존의 목적

- 보존은 자연 · 환경적 손상의 복원과 원인 제거뿐만 아니라 미래 예측 가능한 손상의 예방과 함께 전통 문화의 전승.



그림1. 포틀랜드박물관 소장 백수백복도



그림2. 포틀랜드박물관 소장 자수화조도

※ 상기 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해외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의 복원’ 사업으로 실시한 미국 포틀랜드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2점의 보존처리 결과입니다.(처리기간:2017년 10월 ~ 2019년 6월)

조선의 소반

황지현, 204호 목칠공예실, 19:00~19:30

소반은 조선시대 음식을 나르고, 밥상으로 사용한 일종의 식탁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소반은 조선시대에 더욱 다양한 모양으로 조선인들 생활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다리 모양에 따라 개다리소반(狗足盤), 호족반虎足盤, 외다리 소반(單角盤), 원통형 소반 등이 있으며, 반盤의 형태에 따라서는 원형, 다각형, 정방형, 장방형, 반원형 등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소반은 밥상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한 살이 된 아이의 미래를 점치기 위해 돌상이 마련되었습니다. 남녀의 결합을 위한 자리에 혼례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무언가 기념하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왕실이나 민가民家할 것 없이 잔칫상이 필요했습니다. 새벽에 우물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떠 가족의 안녕을 비는 안주인 앞에는 정화수상이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활동하며 우리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일본인 아사카와 다쿠미의 눈에 비친 소반은 당시 조선인들의 고달픈 삶 속에서도 지키고 꼭 같이 있어야만 하는 기물이었습니다.

“경성에서 원산으로 가는 기차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으로, 간도 방면으로 이주하는 가난하고 피로에 지친 농부 가족이 괴롭고 지루한 여행길에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객차 안에 가지고 타는 물건 중에는 새로 만든 바가지와 함께 잘 닦은 소반이 있다. 정든 집도 팔고 농사를 지으면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소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일가친척친지와 헤어져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로 향하는 그 형편에도 늘 사용하던 소반은 버릴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 아사카와 다쿠미, 『조선의 소반』 (1929) 중 -

소반은 순박한 아름다움과 단정한 모습으로 옛사람들의 회로애락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림1. 무신진찬도 부분



그림2. 평생도 중 돌잔치

특별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2) 에트루리아의 점성술과 신의 예언

노희숙, 기획전시실, 19:00~19:30

에트루리아의 종교는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복잡적이며 신비로운 종교로 인식되었습니다. 에트루리아의 사제들은 신의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하여 고차원적이며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점성술은 특별한 사제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점성술사는 자연 현상 및 자연 요소들을 포괄하는 의식인 창자점을 쳤습니다. 창자점은 양의 간을 관찰하는 에트루리아의 전문적인 점술입니다. 제물은 고대 지중해 종교의례의 핵심이었습니다. 희생 후 동물을 먹음으로써 사회적 구속력이 만들어졌습니다. 동물 내장, 특히 간을 관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번개를 해석하고, 제비를 뽑고,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과 향의 연기를 해석하는 이러한 예언 점은 우주적 개념과 자연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복잡한 의식을 통해 신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점을 치는 새점은 로마에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새점의 호의적인 해석 없이는 권력도 보장될 수 없었습니다.

점성술사가 묘사되어 있는 기념비에는 에트루리아 양식의 옷과 신발을 신은 점성술사가 오른손에 사제임을 상징하는 구부러진 막대기[lituus]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사제들이 일종의 상징으로 지녔던 지팡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물의 간을 손에 든 점성술사의 모습이 묘사된 유골함은 유골함의 주인이 점성



그림1. 점성술사가 묘사된 기념비, 기원전 6세기 말, 높이 60.0cm, 피렌체국립 고고학박물관



그림2. 점성술사가 묘사된 유골함 뚜껑, 기원전 1세기 초, 높이 76.0cm, 구아르나치 에트루리아 박물관

술사임을 암시합니다. 점성술사는 간의 징후를 통해 신의 의지를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1877년 발견된 ‘피아첸차의 간’은 양의 간 모양으로 만든 청동 평판(기원전 2~1세기)으로, 제물로 바친 동물의 창자를 해석하여 신의 뜻을 해석하는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평판에서는 에트루리아 신들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